

# 오키나와 뱀 설화에 대한 일고찰\*

## - 오키나와인의 삶과 뱀의 의미 -

이예안\*\*  
hinolee@jejun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2.2 퇴치형-인간에게 해를 주는 뱀 |
| 2.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 분류 및 분석 | 2.3 혼인형-인간의 배우자로서의 뱀 |
| 2.1 신성형-신의 이미지가 부여된 뱀   | 3. 마치며               |

主題語: 뱀(snake), 신성성(divinity), 퇴치(repellency), 혼인(marriage), 우타키(Utaki), 승(monk)

## 1. 들어가며

인류와 뱀과의 교섭의 역사는 깊고 오래다. 세계의 여러 민족에는 뱀에 관한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 설화의 대부분은 인류가 문예나 종교 안에 그려낸 뱀이다. 거기에 있는 것은 ‘자연으로서의 뱀’을 인간이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한 ‘문화로서의 뱀’이다.

오키나와의 뱀의 호칭에서도 문화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자적인 호칭이 있고 특색 있는 전승과 엮어져 있다. 무독(無毒)인 뱀 아카마타(アカマタ)는 남성으로 변해 젊은 여자를 속이고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아카마타가 분포하는 아마미제도(奄美諸島)와 오키나와제도(沖縄諸島)의 옛날이야기의 ‘뱀 사위 맞이’ 산가쓰셋쿠가타(三月節供型)에서는 뱀은 원칙적으로 아카마타이다. 오키나와제도에서 하부(ハブ)가 뱀의 총칭처럼 불리면서 특징의 독사인 하부나 사키시마하부(サキシマハブ)의 호칭이 되기도 한다. 무독인 뱀의 호칭은 아마미제도, 오키나와제도 등에는 류큐아오헤비(リュウキュウアオヘビ), 미야코제도(宮古諸島),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에는 사키시마아오헤비(サキシマアオヘビ)가 있다. 오키나와제도에서 오나자(オーナジャー)는 인간을 도와주는 뱀이기 때문에 죽이면 벌을 받는다고 해서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소중히 여긴다. 아에야마제도에서는 오나지(オーナージ)는 수신(水神)의 사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오키나와에서 뱀과 인간의 관계는 실로 다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양상도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변천은 말할 나위 없이 각 시대의 뱀에 대한 인간의 의식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뱀에 대한 관념은 오키나와의 민속종교 및 민간설화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오키나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선학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뱀과 오키나와 민속행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sup>2)</sup>와 하부(ハブ)와 신(神)에 관한 연구<sup>3)</sup> 등이 있다. 특히 민속종교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본토와도 이질적인 민속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었지만, 인류 문화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지역의 다양성 안에서 오키나와를 파악하는 시각이 오키나와 연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오키나와 뱀 설화에 나타난 사상이나 관념이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상(事象)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뱀 설화 연구의 일환으로써 일본 오키나와의 뱀 설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 뱀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문헌설화집 『이로세쓰덴(遺老說傳)』<sup>4)</sup>과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sup>5)</sup>, 『기타나카 구수쿠의 전설(北中城の伝説)』<sup>6)</sup>, 『달과 불사(月と不死)』<sup>7)</sup>, 『기노자손사(宜野座村史)』<sup>8)</sup>, 『긴구지-전전편상(金武區誌-戦前編上)』<sup>9)</sup>,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sup>10)</sup>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18세기에 편찬된 이야기(『이로세쓰덴(遺老說傳)』(1743년부터 1745년 사이에

1) 小島瓊礼(1991)編著『蛇の宇宙誌』東京美術, pp.8-10

2) 小島瓊礼(1991)編著『蛇の宇宙誌』東京美術

谷川健一(2012)『蛇 不死と再生の民俗』富山房インターナショナル, pp.167-173

3) 宮城真治(1972)『古代の沖繩』新星図書

4) 『이로세쓰덴』은 오키나와의 왕부(王府)시대에 편찬된 설화집으로 편년체로 기술된 오키나와의 정사(正史)인 『규요(球陽)』의 외권(外卷)으로 편찬되었다. 편자는 『규요(球陽)』의 편자인 정병철(鄭秉哲)·채평모(蔡宏謨)·모여포(毛如苞)등 4인이다. 정권(正卷)3권과 부권(付卷)1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141편에 이르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설화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오키나와 본토의 나하(那覇)에서 아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로세쓰덴』 원문에는 설화제목이 없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설화제목과 내용은 嘉手納宗徳編訳(2011)『球陽外卷 遺老說傳』角川学芸出版을 사용했다.

5) 福田晃·岩瀬博·遠藤庄治編者(1980)日本の昔話30『沖繩の昔話』日本放送出版協会

6) 遠藤庄治(1993)『北中城の伝説』北中城村教育委員会

7) ネフスキー・ニコライ、岡正雄編(1971)『月と不死』平凡社

8) 宜野座村誌編集委員会編(1991)『宜野座村史』宜野座村役場

9) 金武區誌編集委員会編(1994)『金武區誌-戦前編上』金武區誌編集委員会

10) 稲田造二·小澤俊夫責任編集(1983)『日本昔話通観』同朋舎

편찬)와 20세기에 채록된 이야기는 서로 시대적 차원이 다른 정보이지만 오키나와 뱀 설화라는 일정의 관계론의 윤곽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오키나와 뱀 설화에 나타난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한 ‘문화로서의 뱀’에 대해서 고찰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 분석

본고에서는 오키나와 뱀 설화에 나타난 사상이나 관념이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상(事象)이라고 점을 고찰하기 위해 오키나와 뱀 설화를 신성형(神聖型), 퇴치형(退治型), 혼인형(婚姻型)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성형에는 뱀이 신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 설화를, 퇴치형에는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뱀을 누군가의 지혜나 힘으로 퇴치하는 설화를, 혼인형에는 인간과 뱀이 남녀로 만나 관계를 갖는 이야기를 기재한다.

우선 오키나와 뱀 설화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별 분류표 I>

유형	사례	설화 제목	출 처	지 역 명
신성형	1	자탄 군(北谷郡)야라(屋良)무루치(無漏溪)연못의 대사(大蛇) [北谷郡屋良無漏溪の大蛇のこと]	『이로세쓰덴(遺老說傳)』 pp.115-116	자탄 군(北谷郡)야라읍(屋良邑)
	2	독사(毒蛇)는 신(神)의 사자(使者) [ハブは蛇の使い]	『기타나카구수쿠의 전설(北中城の伝説)』 <sup>11)</sup> pp.249-250	기타나카구수쿠촌(北中城村)오기도(荻道)
	3	달에 있는 아카리아자가 마 이야기 [月のアカリヤザガマの話]	『달과 불사(月と不死)』 pp.11-13	미야코섬(宮古島)
	4	뱀과 와카미즈 [蛇と若水]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170	미야코섬(宮古島)히라라(平良)

11) 遠藤庄治(1993)『北中城の伝説』北中城村教育委員会

12)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에 원제는 할머니로 변신한 딸(原題・おばあさんに化けた娘)로 표기되어 있다. 같은 모티브의 이야기가 한 개 더 실려 있다.

13)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에 원제는 3월 3일 해변에 가는 유래(原題・三月三日浜下り由来)

퇴치형	5	마탄코의 유래 [マータンコーの始まり]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30	나카가미군(中頭郡) 가쓰렌쓰켄(勝連村津堅)
	6	대사 구치후라차퇴치 [大蛇クチフラチャー退治]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p.31-32	온나손(恩納村)과 긴(金武)
	7	야라무루치의 인신공양 [屋良漏池の人身御供]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p.33-35	나카가미군(中頭郡) 가테나쵸야라(嘉手納町屋良)
	8	제목에 대한 기재없음	『기노자손사(宜野座村史)』 第3卷, p.518	기노자손(宜野座村)의 소케이(惣慶)부락
	9	제목에 대한 기재없음	『기노자손사(宜野座村史)』 第3卷, p.518	기노자손(宜野座村)의 마쓰다(松田)부락
	10	제목에 대한 기재없음	『긴구지-전전편상(金武區誌-戦前編上)』 p.205	긴(金武)
	11	뱀데릴사위-할머니 옷을 입은 형 [蛇簪入り一姥皮型] <sup>12)</sup>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 pp.75-79	나하시(那覇市)
혼인형	12	미야코섬 하리미즈 우타키의 유래-대사 신훈 전설 [宮古島漲水嶽由来のこと一大蛇神婚伝説]	『이로세쓰덴(遺老説傳)』 pp.123-126	미야코섬(宮古島)의 히라라스마야(平良偶屋)
	13	뱀 데릴사위 [蛇簪入] (1)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p.171-172	미야코섬(宮古島)히라라(平良)
	14	뱀 데릴사위 [蛇簪入] (二)	『오키나와의 옛날이야기(沖繩の昔話)』 pp.172-173	미야코섬(宮古島)
	15	뱀 데릴사위-바늘 실 형 [蛇簪入り一針糸型] <sup>13)</sup>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 p.66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손(読谷村)
	16	뱀 데릴사위-행복한 결혼형 [蛇簪入り一幸福な婚姻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 p.79-80	미야코군(宮古郡)
	17	뱀 데릴사위-알 탄생형[蛇簪入り一卵生子型]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 pp.80-81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손(読谷村)
	18	뱀 부인[蛇女房]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 p.626	나카가미군(中頭郡) 요미탄손(読谷村)

로 표기되어 있다.

## 2.1 신성형-신의 이미지가 부여된 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신성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네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무루치(無漏溪)연못의 대사(大蛇)

자탄군(北谷郡) 아라읍(屋良邑) 계곡에 무루치라는 연못에 사는 대사(大蛇)가 때때로 파도를 일으켜 날뛰고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를 내었다. 혹은 연못가로 올라와 소와 싸웠으며, 뽕뽕이의 절반은 파도에 감추고 나머지 절반은 구름 속에 감추었다. 사람들의 그 뱀의 길이를 알지 못했다. 연못의 물결이 동해와 같이 파도치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반드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 풍우가 몰아친다고 전해진다.

### (사례2) 독사(毒蛇)는 신(神)의 사자(使者)

서낭당에 갔을 때 기도를 드리지 않거나 오키나와 6월 축제 때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5월 축제 때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면 뱀에 물렸다고 한다.

### (사례3) 달에 있는 아카리아자가마 이야기

세쓰마즈리(節祭) 전날 밤 신의 사자인 남자가 두 개의 통을 짊어지고 지상에 내려왔다. 하나의 통에는 스티스이(ステイ水), 다른 통에는 시니스이(死水)가 들어 있었다. 몇 대가 바뀌어도 재생할 수 있는 스티스이를 인간에게 끼얹는 일이 이 남자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였다. 그런데 여행의 피로로 남자가 쉬고 있는 사이에 대사(大蛇)가 스티스이를 뒤집어 써 버려 결국 인간은 시니스이를 끼얹게 되었다. 스티스이를 끼얹은 뱀은 탈피를 함으로써 재생을 반복하는 존재가 된다. 천상으로 돌아간 남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벌로 통을 짊어지고 달 속에 영원히 서 있도록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실패한 인간을 가엾게 여긴 신은 다소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쓰마즈리 전날 밤 천상에서 와카미즈(若水)를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세쓰마즈리 날 이른 아침에 우물에서 와카미즈를 길고 와 가족이 끼얹는 습속이 시작되었다한다.

### (사례4) 뱀과 와카미즈

옛날에 인간이 뱀처럼 허물을 벗고 젊어지는 세상에 같이 살았다고 한다. 히라라(平良)의 무주카천(六日川)에서 ‘세쓰마즈리(節祭) 날에 인간이 이기면 인간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살고 뱀이 이기면 뱀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서 언제까지나 죽지 않게 되는' 내기를 했다. 인간이 세쓰마츠리 날에 무주카천에 가보니 뱀이 먼저 와서 물을 뒤집어쓰고 있어서 인간이 뱀에게 지고 말았다. 뱀에게 진 인간은 죽게 되었고 뱀은 허물을 벗고 죽지 않게 되었다.

(사례 1)은 몸뚱이를 파도와 구름에 감추고 아주 큰 소리를 내고 풍우를 동반하는 신비한 존재인 대사는 동시에 천연의 위협적인 존재, 가장 두려운 존재로서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외경이 착실히 재현되고 있다. 또한 수신(水神)으로 신성성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2)의 「독사(毒蛇)는 신(神)의 사자(使者)」에서 뱀은 인간의 말, 행동, 마음 등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의 소지자인 신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사례3)은 1926년에 미야코(宮古)를 방문한 네후스키(ネフスキー)가 채록한 신화이다. 이 이야기를 아카미네 마사노부(赤嶺正信)<sup>14)</sup>씨는

이 신화에서 말하는 세쓰마츠리는 미야코나 아에야마의 일부에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오늘날에 행해지고 있는 세쓰가와리(節替わり)·도시가와리(年替わり)의 성격을 띠는 시찌제(シツイ際)로…(この神話でいう節祭は、宮古や八重山の一部で夏から秋にかけて今日でも行われている、節替わり・年替わりの性格を有するシツイ際のことであり、…)

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례3)과 (사례4)에서 등장하고 있는 뱀이 인간보다 우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하고 있다. 뱀은 인간과의 경쟁에서 스티디이를 먼저 뒤집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몇 번이고 재생과 부활을 반복할 수 있는 초능력을 얻는다. (사례1)에서 (사례4)의 이야기에서 뱀은 신으로서의 신성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퇴치형-인간에게 해를 주는 뱀

다음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퇴치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일곱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 赤峰正信(1998)『シマの見る夢』ボダーインク, p.9

(사례5) 마탄코의 유래

옛날에 마탄코(マタンコ)의 날이 되면 바다에서 머리가 일곱 개인 뱀이 온다. 이 섬에는 여섯 명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뱀이 다섯 명의 아이를 먹어서 한 명만 남았다. 거기에 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 일곱 개의 큰 항아리에 술을 넣어두라고 했다. 그 뱀이 와서 일곱 개의 항아리의 술을 전부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죽였다. 그 때 부터 마탄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례6) 큰 뱀 구치후라차 퇴치

기센바루(喜瀬武原)에 가는 길에 구치후라차(クチフラチャー)라는 큰 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입은 온나손(恩納村)의 아후소(安富祖)와 나카마(名嘉眞) 쪽으로 향하고 있고 꼬리는 긴(金武)의 곳까지 달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큰 입을 벌리고 “아후소(安富祖)를 먹을 거야” “나카마(名嘉眞)를 먹을 거야”라고 해 아후소의 부락과 나카마 부락 쪽으로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탓인가 아후소와 나카마는 해마다 벼농사도 고구마농사도 흉작이었다. 그런데 구치후라차의 꼬리가 향하고 있는 긴(金武)에서는 매년 풍작이어서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아후소와 나카마 사람들이 모여 흉작의 원인을 구치후라차가 “아후소(安富祖)를 먹을 거야” “나카마(名嘉眞)를 먹을 거야”라고 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뱀을 죽이기로 했다. 긴(金武)마을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아후소와 나카마 남자들이 뱀을 죽이려고 갔다. 그러나 잡혀 먹힐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긴마을 청년이 화살을 뱀의 목을 겨냥해서 쏘았더니 적중해서 뱀은 죽었다고 한다.

(사례7) 야라무루치의 인신공양

야라(屋良)에 있는 무루치(漏池)라는 연못에서 뱀이 나와 밭의 농작물, 양이나 돼지 등 살아 있는 것들을 전부 먹어 버렸다. 이 사실은 안 유타가 “열세 살에서 열네 살 정도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뱀이 이 여자애를 먹고 죽게 되고 비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가난한 집 딸이 제물로 바쳐지게 됐다. 뱀이 사는 연못에서 제를 지내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서 뱀은 죽었고 딸은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사례8) 제목에 대한 기재없음

케이부락에서는 옛날에 가나구시쿠타(カナグシクテイラ)라라고 불리는 동굴에 커다란 뱀이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슈리(首里)에서 주지스님을 초대해 그 뱀을 퇴치했는데 그 때 주지스님이 숙사로 했던 곳이 우후야쿠(ウフヤク)였고 그 후 우후야쿠에는 그 주지스님

을 신으로서 모시게 되었다.

(사례9)제목에 대해 기재없음

기노자촌(宜野座村)의 마쓰다(松田)부락에 우타키(御嶽) 근처에 가미야(神屋) 구니무투(クニムトウ)라고도 해서 전에는 호카마(外間)이라고 하는 저택이었다'라고 불리는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호카마야(外間家)의 조상을 모시는 향로(香爐)와는 달리 보주우가미(坊主御神)를 모시는 향로가 있다. 그 유래는 가미야(神屋) 앞에 있는 메가(前川)라는 강 근처에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커다란 뱀이 살고 있었다. 그 뱀을 퇴치하고 사람들을 구한 주지스님을 보주우가미로서 모셔졌다고 한다. 더욱이 그 주지스님의 무덤이 현재도 메가 동굴 근처에 남아 있다고 한다.

(사례10)제목에 대해 기재없음

대천(大川)일대의 수원(水源)을 지키는 수신(水神)의 화신인 대사(大蛇)가 살고 있었다. 대사는 해마다 독신 여성을 제물로 요구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하천을 범람시켜 전답을 황폐시키며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를 안 닛슈쇼닝(日秀上人)은 불상이 여겨 동굴 입구에서 주문을 외워 염력으로 대사를 종류동 깊이 봉해 퇴치했다.

(사례11)뱀 데릴사위-할머니 옷을 입은 형

세 명이 딸을 둔 농부가 가뭄으로 농사가 안 되서 울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 딸을 주면 논밭에 물을 대주겠다고 해서 허락한다. 그 청년은 뱀으로 변신해서 물을 대주고 세 번째 딸이 한 되의 팔과 바늘을 준비하고 뱀과 결혼하기 위해 산으로 찾아간다. 딸은 바늘을 뱀의 입 속으로 넣어 뱀을 퇴치하고 돌아오려는데 고양이 할머니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한다. 그대로 했더니 산의 도적들을 피해서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고 후에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하게 된다.

오키나와 뱀 설화의 중에 퇴치형에 나타난 뱀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 같다.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별 분류표 I - 퇴치형>

사례	퇴치자	퇴치 이유	퇴치 방법	비고
5	신처럼 훌륭한 사람	딸을 잡아먹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죽임	
6	청년	흉작	활로 쏘아 죽임	
7	유타	살아 있는 것을 잡아먹음	제를 지냄	
8	스님	사람에게 해를 끼침		퇴치한 스님은 신으로 모셔지게 됨
9	스님	사람에게 해를 끼침		퇴치한 스님은 신으로 모셔지게 됨
10	스님	독신 여성을 제물로 요구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침	주문을 외워 염력으로 봉함	
11	딸	결혼 요구	바늘	뱀 퇴치 후에 부자 집 아들과 결혼

오키나와 뱀 설화 퇴치형 (사례5)에서 (사례11)까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뱀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과 뱀을 퇴치한 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없고 퇴치한 자가 후에 신으로 숭앙을 받거나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뱀으로부터 신성성을 완전히 빼앗음과 동시에 뱀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한 존재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키나와 뱀 설화의 퇴치형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뱀을 퇴치한 스님이 후에 신(神)으로서 숭앙받는다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고유신앙과 불교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히가 초신(比嘉朝進)<sup>15)</sup>씨의 오키나와 불교전래와 서민의 불교 수용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키나와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최초의 기록인 『류큐국유래기(琉球國由來記)』(1713년)에 1265-78년 禪鑑禪師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의 사람인지 모른다. 처음에 우라소에성(浦添城) 북서쪽에 절을 세우고 보다락산극사(補陀落山極寺)라고 칭한다. 이것이 승·절이 시작이다'로 되어 있다. ...오키나와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표류 승이 우연히 전한 것으로 영조왕(英祖王)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 백년간 불교를 수용할 정도의 문화능력은 없었다. 불교사상을 계속 이어가기에

15) 比嘉朝進(1987)『沖繩の仏教100のナゾ』沖繩総合図書

는 아직 민중들의 수준이 낮았다.(…沖繩にはじめて仏教が伝来したのは、その最初の記録である『琉球国由来記』(一七一三年編)に「咸淳年間(一二六五~七八)、禅鑑禪師という人あり、どこの人か知らず、…はじめて浦添城の北西に寺を建て、補陀落山極寺と号す。これ、僧・寺の始めなり」とある。…沖繩への仏教の伝来は、漂流僧によってたまたま伝わってきたものであり、英祖王のときも、それ以前も、いやその後の百余年間というもの、仏教を受容するほどの文化能力はなかった。仏教思想を継続するにはまだまだ低い民衆であった)

(사례8)과 (사례9)와 (사례10)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뱀을 스님이 주문을 외어 염력으로 퇴치해서 인간을 구제하는 배경에는 불교사상이 깔려있지만, 그 당시 민중들은 히가 초신(比嘉朝進)씨의 주장대로 불교 사상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로써 인간을 괴롭히는 뱀을 퇴치한 스님을 신으로 숭앙하게 된다는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면 스님은 신으로서 숭앙되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불교사상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히 인간을 어려움에서 구제해주거나,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를 신으로 숭앙했음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6)에서 뱀의 퇴치하는 자는 청년이고, (사례11)에서 뱀과 혼인하기로 한 여성의 지혜로 뱀을 퇴치하고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한다는 이야기에는 뱀이 완전히 신의 이미지가 상실된, 뱀보다 인간이 우위적인 위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3 혼인형-인간의 배우자로서의 뱀

다음은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혼인형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일곱 편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사례12) 밤에 딸을 찾아오는 구렁이(大蛇)와 하리미즈 우타키(漲水嶽)

미야코섬(宮古島)의 히라라스미야(平良偶屋)지방 대부호의 집에 15세인 딸이 뱀에게 홀려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밤에 딸의 처소로 찾아오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을 꽂아두었다. 날이 밝자 즉시 부모가 딸을 데리고 그 실이 이어진 곳을 따라가 하리미즈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석굴 안에 대사(大蛇) 한 마리가 꼬리를 들고 있었다. 그 날 밤 딸의 꿈속에 대사가 머리맡에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 옛날에 이 섬을 창건한 연각(戀角)의 후손이다. 천신인데 뱀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난 것이다. 단지 이곳에 호국신을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왔다. 앞으로 반드시 여자아이를 세 명 낳을 것이니, 나이가 세 살이 되거든

그 아이들을 안고 반드시 하리미즈(漲水)로 데려오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다. 과연 꿈에 일러 준 대로 세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들의 나이가 세 살이 되자 어머니는 세 아이를 데리고 하리미즈로 갔다. 세 여자아이는 대사를 보자 모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사 위에 올라타고서 머리를 붙들거나 꼬리를 만지며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가 혀로 아이들을 핥으며 서로 잘 어울렸다. 대사는 세 아이를 데리고 우타키 안으로 들어가 사라져 수호신이 되었다. 대사는 마침내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 속을 달리며 빛을 발하고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 이를 우타키로서 존신(尊信)하였다.

(사례13) 뱀 데릴사위(1)

예쁜 여자를 멋진 남자가 매일 밤 찾아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웃 할머니가 바늘에 실을 꿰어 그 남자가 찾아오면 꽃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다음 날 따라가 보니 쓰카사야(ツカサヤヤ ; 히라라항 근처에 있는 하리미즈우타키) 돌 안에 있었다. 실을 당겨보니 뱀이었다. 그 바늘이 뱀의 눈에 꽂혀 쓰카사야 신은 한쪽 눈이 없다고 한다. “3월 3일에 썩을 넣은 후치모치(フチモチ)를 만들어 바다에 가서 먹어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뱀의 자식이 태어났다.

(사례14) 뱀 데릴사위(2)

미야코 북쪽에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매일 밤 멋진 남자가 찾아 왔는데, 임신해서 딸을 두 명 낳았다. 처음 만나는 남자를 애들의 아버지로 하기로 하고 이 여자는 딸을 데리고 밭길이 닿는 대로 가다보니 커다란 뱀이 높은 산에 꼬리를 내려뜨리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저 뱀이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애들에게 말하니 한 명은 뱀의 머리를 껴안고 다른 한 명은 꼬리 부분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니노화노마키다(ニノフアノマキダ)우타키가 있다. 거기에 두 딸이 모셔져 있고 그 우타키의 신은 뱀이 아니었을까?

(사례15) 뱀 데릴사위-바늘 실형

아카마타가 남자로 변신해서 미녀 집을 찾아오는 것을 부모가 알고 다시 남자가 찾아오면 바늘에 실을 꿰어 옷에 찌르라고 한다. 딸은 부모의 지시대로 해서 다음날 그 실을 따라가 보니 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딸은 임신한 상태라서 예부터 전해지는 말대로 해변에 가서 하얀 모래를 밟았더니 아카마타의 새끼들이 많이 나왔고 딸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해변 놀이의 시작이라고 한다.

(사례16)뱀 데릴사위-행복한 결혼형

딸의 어머니가 밭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한 청년이 와서 도와준다. 어머니는 그 청년에게 원하는 바를 물었다니 딸을 한 명 달라고 한다. 세 번째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했다. 뱀은 신의 화신으로 세 명의 딸들의 부모에 대한 애정을 시험한 것이다.

(사례17)뱀 데릴사위-알 탄생형

딸이 남자의 이마에 실을 쥔 바늘을 꽂아 뒤를 따라가 보니 동굴로 들어가 있어서 인간이 아님을 안다. 딸은 임신해서 아카마타의 알을 낳는다. 그 알에서 미인이 태어나 키워서 여섯 명은 노로(ノロ)의 집에 주고 한 명은 부모가 키운다.

(사례18)뱀 부인

어떤 남자가 절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 예쁜 여인이 와서 그 남자의 시중을 들어 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여자가 임신을 했다. 여자는 남자에게 출산하는 모습을 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여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출산하는 모습을 보니 독뱀이 아이를 낳고 있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여자는 한 쪽 눈을 빼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고 혼자 떠나 버린다. 아이는 그 눈을 빨며 성장하는데 눈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울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던 독뱀이 다시 와서 하나밖에 없는 눈도 뽑아주고 아이가 자라면 절의 종을 쳐서 몇 시인지를 알려 달라고 한다. 그 때부터 이 절에서는 종을 치게 되었다고 한다.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혼인형에 나타난 뱀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오키나와 뱀 설화 유형별 분류표 I-혼인형>

사례	이미지	변신형태	정체 확인 방법	자식 탄생 형	거처	비 고
12	우타키의 신	뱀→남자	바늘과 실	세 명의 여자아이	우타키	뱀과 세 명의 딸이 우타기 안으로 들어가 수호신이 됨
13	우타키의 신	뱀→남자	바늘과 실	뱀 새끼	우타키	3월 3월 하마구다리
14	우타키의 신	뱀→남자	뱀과 뱀의 자식이 만남	두 명의 여자 아이	높은 산	두 명의 딸이 우타기에 모셔짐

15		뱀(아카 마타)→ 남자	바늘과 실	뱀 새끼	동굴	하마구다리
16	신	뱀→남자		세명의 딸		남자로 변신한 뱀과 인간인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삶
17		뱀(아카 마타)→ 남자	바늘과 실	아카마타 의 앞에서 미인이 태 어남	동굴	여섯 명은 노료(ノ口)의 집에 주고 한 명은 부모가 키운다.
18		독뱀→ 여자	남자가 출 산하는 장 면을 봄	아이		절에서 종을 치게 된 유래

(사례12)에서 (사례18)까지의 공통점은 뱀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점,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더라도 퇴치의 대상이 되거나 죽지 않는다는 점, 인간의 아이 또는 뱀 새끼를 출산한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의 경우는 뱀에게 고귀한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부여 되어져 있다는 점과 뱀이 변신이 가능한 초능력을 소지한 신이라는 관념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12)와 (사례13)과 (사례14), (사례16)의 경우는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뱀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밝혀진다. 또한 (사례18)을 제외하고 딸을 중심으로 뱀과 결혼 하는 이야기인 점, 결혼 상대의 딸은 막내(셋째 딸)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고 있다.

(사례12)와 (사례13)과 (사례14)에서 뱀과 우타키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우선 뱀과 우타키의 관련을 고찰하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우타키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나코 호쇼(名幸芳章)<sup>16)</sup>씨의 주장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우타키는 그들의 보호자이며 종교적 지배자인 신이 거처한다고 여겨진다. 또 부락주민의 수호신인 동시에 우타키신과 주민은 혈연적인 관계로 이어져 이른바 시조와 씨족 관계가 성립된다고 일부에서는 여겨졌던 것이다. 그래서 촌락을 구성하는데 우타키는 불가분의 것이고, 그 신의 은혜 하에 부락의 존립이 보장되며 정치적인 안정이 있는 것이다.(...お嶽は彼等の保護者であり、宗教的支配者である神が住み賜うと考えられ、又、部落住民の守護神であると同時に、お嶽の神と住民は血縁的關係を以て結ばれ、いわゆる始祖と氏子の關係が成立するものであるとも一部には考えられていたものである。それ故、村落の構成にはお嶽は不可欠のものであって、その神の恩恵の下に部落の存立が保証され、政治の安定があつたのである。)

16) 名幸芳章(1971)『沖繩の風習と迷信』護国寺

나코 호쇼(名幸芳章)씨의 우타키의 신과 우타키에 대한 주장을 바탕으로 (사례12)와 (사례13)과 (사례14)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이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뱀들과 뱀과 인간(여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뱀을 신으로서 신성시하는 사상뿐만이 아니라, 뱀과 인간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우타키 안으로 들어가 수호신이 된다는 관념은 뱀과 인간이 혈연적인 관계를 신성시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사례12)와 (사례13)과 (사례14)에서 뱀은 인간과 혈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수호신이고, 오키나와의 고유신앙인 우타기신앙과 뱀신앙이 습합된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례12)와 (사례14)와 (사례16)과 (사례18)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뱀이 배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부모로서의 모습이다.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만났을 때 서로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자식을 남겨놓고 사라져야만 하는 괴로운 마음이 자기의 양 쪽 눈을 내어 주는 데서 깊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전해진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뱀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인간과 같다는 관념이 나타나 있다.

(사례15)이외에도 『일본옛날이야기통관(日本昔話通観)』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40회를 소개하고 있다.

- 1) 아카마타(또는 하부)가 남자로 변신해서 여자를 찾아온다.
- 2) 남자의 옷에 실을 켜 바늘을 꽂아 남자의 정체를 밝힌다.
- 3) 여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3월 3일 해변에 가서 뱀의 새끼를 낚태시킨다.

고지마(小島) 17)씨에 따르면

…오키나와제도에서는 ‘뱀사위 맞이’는 3월 3일의 ‘하마구다리(浜下り)’ 행사의 유래로써 알려져 있다. 뱀은 독사인 하부가 아니고 아카마타이다. …하마구다리(浜下り)와 관련하여 오키나와 제도에는 일반적으로 여자아이가 발에 있을 때 흘리거나 야외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뱀의 아이를 임신하는 전승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뱀사위 맞이의 3월 3일형이 오키나와본토 중 남부지역, 미야코제도, 야에야마제도에 현저하다(琉球諸島では、「蛇響入」は三月三日の「浜下り」の行事の由来として知られている。蛇は毒蛇のハブではなく、アカマタである。…この浜下りと関連して、琉球諸島には、一般に、娘が浜に出ていると蛇に見入られるとか、野外で昼寝をしていて、蛇の子をみごもるとかという伝えが廣く知られている。三月三日型は、沖縄本島の中、南部、宮古

17) 小島瓊礼(1991)編著『蛇の宇宙誌』東京美術, pp.167-168

諸島、八重山諸島に顯著である。)

(사례13)와 (사례15)의 경우 해변에 가서 뱀의 새끼를 낳는다는 이야기에는 뱀으로부터 신성을 빼앗은 후에, 자연 속에 있는 뱀으로서, 극히 일상적인 감각으로 뱀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오키나와 뱀 설화 중에 혼인형의 경우는 뱀과 인간과의 결혼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식들은 인간, 알, 뱀의 새끼의 형태로 태어나 수호신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거나 동물인 뱀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 3. 마치며

오키나와 뱀 설화를 신성형, 퇴치형, 혼인형으로 나누어 그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관념 및 사상에 대해 고찰 해 보았다.

우선 신성형의 경우는 뱀은 인간보다 우위적인 존재로 신으로서의 신성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치형의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뱀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과 뱀을 퇴치한 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없고 퇴치한 자가 후에 신으로 숭앙을 받거나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뱀으로부터 신성성을 완전히 빼앗음과 동시에 뱀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한 존재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형의 경우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점,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더라도 퇴치의 대상이 되거나 죽지 않는다는 점, 인간 또는 뱀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의 경우는 뱀에게 고귀한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부여 되어 있다는 점과 뱀을 변신이 가능한 초능력을 소지한 신이라는 관념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뱀을 신으로서 신성시하는 사상뿐만이 아니라, 뱀과 인간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우타키 안으로 들어가 수호신이 된다는 관념은 뱀과 인간이 혈연적인 관계를 신성시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혼인형의 경우는 뱀과 인간과의 결혼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식들은 인간, 알, 뱀의 새끼의 형태로 태어나 수호신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거나 동물인 뱀으로 살아간다. 여기에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다양한 관념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 【參考文獻】

- 赤峰正信(1998)『シマの見る夢』ポーターインク  
稲田造二·小澤俊夫責任編集(1983)『日本昔話通観』同朋舎  
遠藤主治(1993)『北中城の伝説』北中城村教育委員会  
嘉手納宗徳編訳(2011)『球陽外卷遺老説傳』角川学芸出版  
宜野座村誌編集委員会編(1991)『宜野座村史』宜野座村役場  
金武區誌編集委員会編(1994)「金武區誌-戰前編上」金武區誌編集委員会  
小島瓊礼(1991)編著『蛇の宇宙誌』東京美術  
谷川健一(2012)『蛇 不死と再生の民俗』富山房インターナショナル  
知名定寛(2008)『琉球仏教史の研究』榕樹書林  
名幸芳章(1971)『沖繩の風習と迷信』護国寺  
仲松弥秀(1977)『古層の村』タイムス選書 4 1975年、同『神と村』  
ネフスキー·ニコライ、岡正雄編(1971)『月と不死』平凡社  
比嘉朝進(1987)『沖繩の仏教100のナゾ』沖繩総合図書  
福田晃·岩瀬博·遠藤主治編者(1980)日本の昔話30『沖繩の昔話』日本放送出版協会  
外間守善·波照間永吉編著(1997)『定本琉球国由来記』角川書店

---

논문투고일 : 2013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1월 20일

---



〈要旨〉

오키나와 뱀 설화에 대한 일 고찰

오키나와 뱀 설화를 신성형, 퇴치형, 혼인형으로 나누어 그 당시 사람들의 뱀에 대한 관념 및 사상에 대해 고찰 해 보았다.

우선 신성형의 경우는 뱀은 인간보다 우위적인 존재로 신으로서의 신성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퇴치형의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뱀은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과, 뱀을 퇴치한 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 없고 퇴치한 자가 후에 신으로 숭앙을 받거나 부자 집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뱀으로부터 신성성을 완전히 빼앗음과 동시에 뱀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악한 존재로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인형의 경우는 뱀이 인간으로 변신한다는 점, 인간으로 변신한 뱀의 정체가 밝혀지더라도 퇴치의 대상이 되거나 죽지 않는다는 점, 인간과 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의 경우는 뱀에게 고귀한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부여 되어 있다는 점과 뱀을 변신이 가능한 초능력을 소지한 신이라는 관념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뱀을 신으로서 신성시하는 사상뿐만 아니라, 뱀과 인간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우타키 안으로 들어가 수호신이 된다는 관념은 뱀과 인간이 혈연적인 관계를 신성시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해변에 가서 뱀의 새끼를 낳는다는 이야기에는 뱀으로부터 신성을 빼앗은 후에, 자연 속에 있는 뱀으로서, 극히 일상적인 감각으로 뱀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A Study On the Snake Tales Of Okinawa

This paper is to classify the snake tales of Okinawa into 3; the types of divinity, repellency, and marriage and to study how the people at that time thought and had an idea of snakes.

First, in the type of divinity, snakes can be known to be given divinity as a god that had the advantage over human beings. Second, in the type of repellency, the tales have in common that snakes hurt humans, and those who repelled snakes didn't get worse, and was worshiped as a god or got married to a wealthy son and lived happily after. Through the 2 types, people not only took the divinity away from snakes but saw them as harmful beings.

Lastly, in the type of marriage, snakes metamorphosed themselves into human beings. Even if they were known to being metamorphosed, snakes were not repelled or murdered, and a baby was born between a snakes and a human being instead. This shows that snakes were given to be dignified, supernatural, and metamorphosed as a god on the basis of people's idea. A snake is divinized as a god and the son who was born between a snake and a human being joins Utaki and become a guardian deity. This is derived from that the idea that the relationship of snakes and human being by blood is sacred. In On the other hand, in Type 13, and Type 15, the tale that the snake give a birth to a baby at the beach is seen to understand that snakes are just snakes in nature as usual. their divinity taken away.